



피르소를 위한 변론

임제혁 ·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피르소를 위한 변론이나 변명이 모두 부질없는 것은 어느 것이든 피르소의 자의식에 대한 각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을 한다 한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과 도덕, 윤리의식의 잣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카뮈(알베르 카뮈)의 작품 중에 「이방인(L'étranger)」이라는 작품이 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아니 오히려 “뭐 이런 작품이 있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소설의 첫 문장부터 공감하기가 힘들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준 엄마의 죽음에 대한 1인칭 시점의 소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도 아닌 “엄마가 죽었다(Maman est morte)”로 시작한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 존중은커녕 그 죽음에 대한 일말의 공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돌아가신 날조차 그에게는 희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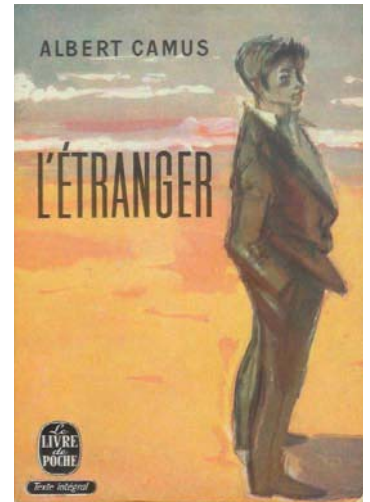
주인공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계없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이튿날 한 여인과 육체적 관계를 나눈다. 이즈음에서 책을 덮는 독자들도 생긴다. 좀 더 참고 소설을 읽어내려 가다 보면 며칠 뒤, 해가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는 권총으로 아랍인을 죽인다.

“나는 권총 손잡이의 매끈한 배를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날카롭고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햇볕을 떨쳐 버렸다. 나는 내가 한 낮의 균형을,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던 해변의 그 예외적인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미동도 않는 몸뚱이에 네발을 더 쏘아댔고 탄환은 흔적도 없이 박혀버렸다. 그것은 불행의 문턱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같은 것이었다.”

이후 소설은 영혼 없고 무료한, 의식을 상실한 자의 인생에 대한 무미건조한 서술에서 적극적인 서술로 전환한다. 그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도 ‘이방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타인의 손에 의해 맞이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방인’으로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가 느낀 감정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순간에 느껴지는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주인공이 ‘반성’을 했다면 3류 통속소설이 되었을 텐데 카뮈는 미시적으로 그의 의식에 집중한다. 남들이 만들어낸 ‘도덕’, ‘윤리’ 그리고 ‘법’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주인공 ‘뫼르소’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사형’이라는 타자적 법집행을 주인공이 스스로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으로 변화시킨다.

다행히도 아직 뫼르소 같은, 필자가 형법에서 배운 ‘고의성’,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반성’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완벽한 이방인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뫼르소를 의뢰인으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소설 「이방인」의 후반부에는 ‘내세’를 강조하며 참회를 기도하는 신부와 주인공 사이에 격한 감정이 오간다. 카뮈의 무미건조한 문체가 격한 폭발을 보이는 대목이다. 뫼르소에게 내세가 무슨 중요성이 있겠는가?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앞 둔 주인공에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뮈가 1942년에 발표한 소설 《이방인》.

[출처 : 나무위키(<https://namu.wiki/w/이방인>) (소설)]

게 중요한 것은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고, 자신이 의식 없이 보낸 시간이 그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표현으로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증오를 사고 있는 주인공은 오히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증오에 찬 절규로부터, 신부가 제안하는 구원으로부터 자유롭다. 신부는 결국 눈물을 가득 껴 채 떠난다. 그 눈물은 아마도 신부로서 느낀 연민일 것이다,

“신부가 나가버린 뒤에 내 마음은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기운이 없어 자리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별들이 보였으니 말이다. 들판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내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밤 냄새, 흙 냄새, 소금 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잠든 여름의 그 희한한 평화가 조수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때 한 밤의 끝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관계없는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소설에서도 죽음을 앞둔 자가 이토록 명료한 의식을 보인 적은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 생각해본다. 이 사람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 사람을 세상에 알려야 할 것인가? 그는 몰염치한, 한 사람에게 수차례 권총을 쏘아서 죽인 극악한 살인범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는,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책임 감경을 논해볼 구석조차 없다. 그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는 '변호인의 조력'이라는 미명하에 형식적으로 존재했을 따름일 것이며, 검사에게 그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기 가장 편한 대상이었을 것이고, 판사에게는 고민 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질이 불량한 피고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카뮈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는 피고인 피르소를 혐오스러운 '이방인'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냈으며, 모든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그녀가 왜 말년에 '약혼자'를 갖게 되었는지, 왜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거기에서도, 삶이 점차 희미해져가는 양로원에서, 저녁은 쓸쓸한 휴식같은 것이었다. 죽음에 인접해서야 엄마는 해방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됐다고 느꼈음에 틀림없었다. 누구도,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에 울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20여 년 전 대학 시절 이 대목에서 연민을 느꼈다는 친구에게 교수는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


는데 사형을 당해서 그런 것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교수는 방금 읽은 대목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

“누구도,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에 올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 주인공에게 연민을 느껴야 할 부분은 그의 각성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한 채 엄마의 죽음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조차도 건조한 문체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네 번의 노력을 하기 전의 삶이다.

기자 출신이기도 했던 카뮈는 소설에서 이 엄청난 살인사건을 두고 감옥 밖에서 동요하는 여론을 간간히 보여준다. 살인사건이 있기 전까지 뫼르소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살인 사건으로 인해 그는 유명인이 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조차 슬픔을 느끼지 않았던 모습이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에 대한 외부적인 ‘인간’으로서의 평가가 추락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뫼르소의 의식은 명료해져만 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이다. 아니 뫼르소는 그 책임을 달게 선택한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내 괴로움을 씻어주고 희망을 안겨 준 것처럼, 나는 이 징후와 별들이 드리운 밤 앞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다정스러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것처럼 세계가 나와 다름없고 형제 같음을 느끼며 나는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성취되고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와 함성을 울리며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뫼르소를 위한 변론이나 변명이 모두 부질없는 것은 어느 것이든 뫼르소의 자의식에 대한 각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을 한다 한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과 도덕, 윤리의식의 잣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 점이 카뮈를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올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1913년 11월 7일 ~ 1960년 1월 4일)는 프랑스의 피에 누아르 작가, 저널리스트 그리고 철학자였다.

[출처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알베르_카뮈)]